

국정뉴스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축식이 8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경축식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한외교단, 시민 등 22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부는 이날 경축식에서 고 최병국 애국지사의 후손 등 독립 유공자 177명에게 포상을 진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 9월 평양서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을 향한 담대한 발걸음 디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고위급 회담...
9월경 평양서 남북정상회담

남과 북이 8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전체회의에 앞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허물어 없애는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막역지우’에 비교했다. 이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서로 같은 마음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간다면 못 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5일 연속 서울 열대야,
영천 신녕면 40.2도... 기록적 폭염

1994년 폭염이래 최고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지난달 7월 21일부터 연속 25일째, 기록적인 열대야를 이뤄 시민들이 잠 못 이루고 있다. 경북 영천군 신녕면은 기상청에 따르면 40.2도(7.24. 기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폭염일수를 관측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3번째 장기폭염으로 기록됐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대책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2)2238-0746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제15회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참가기

토론대회 통해 민주주의 참가치 배우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오늘 자유센터 토론장에 들어서니 2년 전 결승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 최우수상과 베스트스피커상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아울러 함께 참가해 자웅을 겨뤘던 친구들의

얼굴도 스칩니다.

이번 대회에선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16강전과 8강전 심사를 맡아 굉장한 영광이자 매우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오전 내내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와서 고백하건데 사실 저는 대중 앞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2년 전 결승 무대에 오르기 전 제 팀

메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아 무대에 올라가면 자신감 있는 척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거야” 그날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와 어깨를 펴고 평소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었더니 긴장은 온 데 간 데 사라졌습니다. 그 날 얻은 교훈을 후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자신감

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후배들이 토론대회 준비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토론대회가 후배 여러분에게 민주주의 참가치를 배우고 더불어 자신감을 얻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멋진 청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재원 | 서울대 언어학과 1학년